

# 광주청년의 꿈과 기업이 만납니다

### 오늘부터 3일간 '일경험드림' 참여자 선정 '만남의 날' 광주시청 로비...사업장 315곳 참여 청년 500명 선발

광주시청 1층 로비가 13일부터 3일간 청년의 꿈과 기업이 만나는 장소로 바뀐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시청 1층 시민실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5기 청년참여자를 위한 '드림 현장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청년의 장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 추진해온 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2017년 시작돼 상·하반기로 나눠 4개 기수가 운영되면서 2년 동안 지역청년 1000여 명과 사업장 350여 곳이 참여했다.

다양한 직무현장과 연계하기 위해 공공

기관, 공익활동,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기업 등 6개 유형으로 나뉘었다. 또 청년들이 경험하게 될 사업장과 직무 정보를 파악한 뒤 직접 선택하도록 한 것이 기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차이점이다.

지난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선도유형으로 제시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의 사업모델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 같은 방식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청년드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1기부터 4기까지 참여한 청년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의 73.8%가 '채용하고 싶은 청년을 만났다'고 답했고, 청년들은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근무태도를 알게됐다'에 71.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5기 사업장은 공개 모집 후 근무환경, 청년에게 제공하는 직무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315곳을 선정했다.

시는 청년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한 2월 1일부터 '광주청년드림' 공식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업장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강소기업은 물론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을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참석해 청년들

에게 사업장을 소개하고 1대1로 직무를 상담한다. 청년들은 사업장을 모두 둘러본 후 면접을 거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면접은 학력, 스펙 등을 배제하고 청년의 적성과 관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긍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 외부 면접위원 17명이 함께 한다. 최종 매칭에 성공한 참여청년 500명은 27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준영 시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이 참여청년과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됐다"며 "일하면서 미래를 찾고 싶은 청년의 꿈과 좋은 인재를 찾고 싶은 기업이 만나는 자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중흥동에...뉴딜사업 지원 업무



광주시 북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북구는 "중흥동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라고 11일 밝혔다. <사진> 현재 북구는 전남대와 광주역 주변에 2023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380여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청년일자리·주민공동체·스마트시티 총 3개팀 5명으로 구성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기업, 청년단체 등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등)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공모사업 컨설팅, 주민교육 등 주민주도 사업 유지·관리와 청년창업,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주민,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현장 지원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새내기 소방관 28명 임용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1일 정중제 행정부시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내기 소방공무원 28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은 5개 소방서 일선 119안전센터에 배치돼 화재·구조·구급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광주시상수도본부 주택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165㎡ 이하 주택·복지시설  
수도관 교체 최대 100만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물 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 노후 주택·복지시설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수도관에서 누출이 나오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수도관 교체비 또는 관세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흐린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가정,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주택(공동주택은 60㎡이하)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비 일부를 보조한다.

지원금은 수도관 교체 최대 100만원, 이물질 제거하는 경생공사 최대 80만원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상수도사업본부 해당 지역사업소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도관 상태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알려주고, 개량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비를 지원한다.

문의는 각 지역사업소(동부사업소

(609-6532), 서부사업소(609-6632), 남부사업소(603-6733), 북부사업소(609-6843), 광산사업소(609-6932))로 하면 된다.

황봉주 본부장은 "물 복지 도시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노후 상수도 지원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농장**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 서구 서창동 향토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국토교통부 국비 10억원 확보  
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4개 시도 및 60개 시·군·구에서 응모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8명의 민간전문가와 심사위원이 1차 PPT 심사에 이어 2차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광주시 서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10억원의 국비를 받게 됐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서구의 우수사례는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사진> 관광명소 정비사업'으로 호남에서는 유일하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는 전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은 기존의 향토문화마을을 문화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 서창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지속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산구 쓰레기봉투가 새로워진다!  
디자인 시민 투표 이벤트

## 광산구 "새로운 쓰레기 봉투 뽑아 주세요"

5개 디자인 마련 구민 투표  
을 바꾸는 이번 시도는 김삼호 구청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사례처럼,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 중 하나인 쓰레기 봉투를 아름답게 디자인 해 광산구만의 매력요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었다.

광산구는 이에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50리터)를 지역 특성을 알리는 등 친환경보호의 속 뜻이 담긴 5가지 디자인(사진)을 마련했다. '북극곰을 살려주세요'를 비롯해 '우리광산 푸르게 푸르게' 및 '빨간 모자 손아이', '수달이 살고 있어요',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등으로 각각 디자인의 설명까지 곁들였다.

광산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

광주 광산구가 청소원들이 수거하기 전까지 주택가 및 도로 곳곳에 방치돼 흉물스러웠던 쓰레기 봉투를 산뜻한 이미지로 탈바꿈 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광산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을 바꾸는 구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광산구 쓰레기 봉투가 디자인을 입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투표문을 시작으로 "다섯개의 멋진 디자인이 나왔는데 구민 여러분의 코드가 필요합니다"라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